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박 천 상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장

21세기 들어 환경산업의 육성과 이에 따른 환경 기술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환경기술개발은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은 물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와 무역의 연계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을 고려한 생산과 소비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산업은 단순한 환경산업이 아닌 모든 산업과 연계되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산업이 정보통신, 바이오산업과 함께 21세기 성장 유망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국제 환경시장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1996년 4,741억불, 2000년 5,320억불, 2004년 5,890억불로 늘어나고 있다. 매년 성장을 계속해 2010년에는 7,083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도 환경시장에 대한 국내 환경시장의 규모는 2004년 중 약 16조 866억원으로 2003년의 14조 7,414억원에 비해 9.1% 증가했다. 아직은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국내 총생산액의 2.07%로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은 중국을 시발점으로 하여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등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은 연 평균 7% 이상의 높은 성

장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내년의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엑스포를 앞둔 상황이어서 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이같이 국제적으로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의 벽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의 환경기술이 부각된 것은 10여년에 불과하고 연구개발도 몇 년사이에 크게 늘어나 선진국들보다는 해외시장을 공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1970년대부터 환경기술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고 인지도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부처간에 흩어져 추진하고 있는 환경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고려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부 환경분야 R&D예산의 경우 과기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져 서로의 정보교환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로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기술을 한단계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환경업체에 대해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할 필요도 있다.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은 우리의 미래 경제를 살리는 전략산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㉔